

# 2022년 사업계획(안)

## ■ 사업목표

“조직 운영의 정상화 및 지의 현안 대응 강화”

- 회원: 400명 회원 회복(회원 100명 확대)
- 운영: 온라인 소통공간을 적극 활용한 조직 운영
- 활동: 사무업무 최소화, 연구 및 현장 활동 강화
- 중점: 월성원전 안전성 확보 및 조기 폐쇄  
다양한 형태의 회원 참여 사업 확대

## ■ 사무국 사업계획

### □ 조직 및 운영 정상화

- 경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활성화.
  - :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활동 내용 공유.
  - : 홈페이지 콘텐츠를 기반으로 웹 소식지 발행.
- 온라인 소통공간을 적극 활용한 회원 모임 활성화.
- 각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 추진.

### □ 회원 배가 및 재정 안정화

- 회원 배가 운동을 적극 펼쳐 400 회원 달성(회비납부 회원 기준).
  - :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창을 활용한 간편한 온라인 회원 가입.

- 온라인 프로젝트 모금을 적극 활용해 시민의 힘으로 사업 진행.

## ▣ 생태위원회 사업계획

### □ 생태탐방

- 생태의식 함양과 회원 가족 유대를 위해 연 4회 생태탐방 나들이 진행.  
: 경주지의 보조금 지원 및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진행.

### □ 형산강 걷기

- 형산강 지류 걷기: 3,4,6,7,11월
- 남천 모니터링: 5,9,10월

3월	4월	5월	6월	7월	9월	10월	11월
지류	지류	남천	지류	지류	남천	남천	지류

- 남천 모니터링은 환경보전활동과 모래강 걷기 체험을 결합.
-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진행

### □ 지역 생태보존 활동

- 천군동 저수지(천군동 1385번지) 남생이 보존 활동.  
: 천군동 저수지는 천연기념물 남생이의 국내 최대 서식지.  
: 저수지 상류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유입, 부동산 개발(저수지 매립) 등의 위협으로 남생이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음.  
: 다양한 보존 활동 진행.
- 충효천 상류 생태 보존.  
: 충효동을 가로질러 형산강(서천)으로 합수하는 충효천은 2014년부터 경주시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복원 사업을 펼침  
: 아당지를 기준으로 도심을 흐르는 하류는 오수 유입을 막고 정화 활동을 통해 복원을 했으나 인공 구조물에 둘러싸인 하천으로 변모됨  
: 아당지 상류는 자연생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. 현재 아당지 상류의 택지

개발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상류의 자연생태 파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.

: 도심을 흐르는 하천이 인공구조물이 아닌 자연의 생태를 잘 보존하고 있다면, 시민 정서 및 아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음.

: 충효천 상류 보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등 활동 진행.

- 도심 폐철도부지 공원화 모니터링

: 폐철도 부지 녹지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, 자연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공원화 추진

□ 생태위원장이 기획하는 사업

- 생태 관련 교육, 견학, 조사, 보존활동 등

## ■ 생명안전위원회 사업계획

□ 학교 석면 철거 모니터링

- 학교 석면 철거 모니터링 지속.

- 학교 석면 철거 모니터링 회원 역량 확충

: 현재 5명의 회원이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.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회원 역량을 10명까지 확충하여 안정적인 모니터링 기반을 조성할 필요 있음.

□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 네트워크

-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확보 활동.

- 화학사고 경주지역 대비체계 점검 및 수립 활동.

□ 생명안전 위원장이 기획하는 사업

- 화학물질, 먹거리 안전 관련 교육, 견학, 조사활동 등

## ■ 현안위원회 사업계획

### 환경시설 모니터링

- 경주시 관내 주요 환경시설 모니터링 및 회원 견학 사업 추진.  
: 회원 견학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진행.

### 환경 민원에 적극 대응

- 민원 해결 과정에서 제도적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접근.

## ■ 문화위원회 사업계획

### ‘함께 사는 길’ 독자 모임 운영

- 독자 모임 운영을 정상화.
- 온라인 소통 공간 적극 활용.

### 환경 영화 상영

- 사무실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감상을 지속적으로 진행.

### 기후위기 대응 활동

- 시민 교육 및 캠페인 등 조직

### 문화위원장이 기획하는 사업

- 인문학 강좌 등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.

## ■ 시민참여위원회 사업계획

## □ 지방선거 대응

- 올해 6월 1일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환경운동연합의 경주지역 환경 의제를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 제안.  
: 지방선거 의제TF 구성.  
: 5월초 의제 정리 발표 및 지방선거일까지 정치권에 적극 요구.

## □ 경주지역 시민사회 연대활동

### ■ 원전방폐장위원회 사업계획

#### □ 월성원전 안전성 문제 극적 제기

-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진상조사에 적극 대응.
- 월성원전 전반의 설비 노화에 따른 방사능의 지속적 누출 가능성이 크므로 월성원전 전반의 안전 진단 및 조기폐쇄를 포함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함.

#### □ 방폐장 추가 건설 사업 감시 강화

- 방폐장 추가 건설이 천층식 및 표층식으로 건설 및 추진되고 있음.
- 특히 표층식은 생활쓰레기 매립장과 비슷한 구조로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구조임. 2005년 주민투표 당시 경주시민에게 홍보한 동굴식 처분장과 매우 거리가 먼 공법으로 면밀한 감시 및 대응이 필요함.

#### □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지원

- 주민들 투쟁을 다룬 '원전마을' 출판 및 보급.
- 발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에 주력.
- 환경부의 '원전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'에 적극 대응.

□ 갑상선암 공동소송 지원

- 피해자 가족의 재판 참관 지원 등 극적 소통.
- 변호인단 지원 및 관련 학술 모임에 적극 참여.

□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대응

- 2020~21년 맥스터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준공 및 운영이 예정되어 있음. 맥스터 운영 이후의 대응 방안 모색 필요.
- 국회에 계류 중인 ‘고준위 특별법’ 등에 적극 대응.

□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사업 강화

- 경주환경운동연합이 간사 단체로서 더욱 책임성 있게 관련 사업 진행.

□ 기타 탈핵 사업

- 월성원전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및 방재계획 내실화.
- 탈핵신문 읽기 모임 등 조직.
- 전국 핵발전소 지역 시민사회의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.